

故 김상준목사설교

위대한 의논(議論)

〈성경 : 사 : 18 - 20〉

발굴정리 : 송 기 식
(강남교회목사)

이 설교는 故 김상준 목사의 설교로 1933년 6월 10일 부산 수정동교회 집회시에 행한 것이다. 당시에 참여했던 대구봉산교회 양제호 장로께서 개략을 필기한 노트를 발견하였는데 필자가 그 전후 문맥을 살피어 온전한 설교문으로 재생시켜 보았다. 그러나 어찌 위대한 고인의 육성에 비할 수 있겠는가. 다만 초대 성결교회 지도자의 설교의 유형을 살필 수 있으며 강단의 뜨거운 가슴을 맛 볼 수 있어 크게 유익하였다.

사람들은 여러가지 의논을 합니다. 두세사람만 보이면 의논이 벌어지는데 대체로 악한 의논을 많이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수를 죽일 의논을 하였읍니다.(마26:4, 27:1),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의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의논하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범죄한 인생들은 태연한데 하나님

께서 먼저 의논하자고 계의 하십니다. 마치 대주(貸主)가 차주(借主)에게 사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첫째로, 너희 죄가 주홍(朱紅) 같을지라도 의논하자고 하십니다.

물색가운데 가장 물들기 쉬운 색은 주홍색입니다. 슬쩍 스치기만 하여도 물들고 맙니다. 한번 물들면 빨 수 없는 것이 주홍입니다. 가령 삼베에 이 물이 들었다 해도 빠지지 않습니다. 만일 비단에 주홍물이 들면 더욱 빠지지 않습니다.

방망이로 쳐도 안되며 삶아 젓물을 넣어도 안됩니다. 옷만 떨어져서 다 삭아 없어지기 전에는 할수없는 일입니다.

우리 인간은 조상의 죄로 물들고 개인 자범죄(自犯罪)로 두번 염색되었으매 마귀가 삼았읍니다. 자 이것을 누가 감히 빼겠읍니까?

쓰크라메스도, 헤겔도 아무도 할수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둘째로, 너희는 와서 같이 의논하자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독재자가 아니십니다. 삼위하나님께서서는 더불어 의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마치 회의시에 동의, 재청하여 가결하는 것같이 협의과정을 거쳐 가결하십니다. 성부와 성자, 성신께서 우리와 더불어 의논하시자고 하십니다. 그러면 아무리 멸망받을 죄악이라도 눈과 같이 양털 같이 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① 눈과 같이

눈보다 흰것은 다시 없습니다. 눈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피조물인즉 은총을 상징합니다. 그 눈은凸凹의 대지를 평평하게 합니다. 빈부귀천 막론하고 평등하게 하십니다. 길가에 널려있는 소동 말뚝 더러운 것을 다 덮어 버립니다.

② 양털과 같이

양털은 회기만 한 것이 아니라 유하며 따뜻합니다. 양털은 깎아도 또 나옵니다. 이 양털은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므로 양을 죽이기 전에는 그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일시적으로 없애 주시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

부터 변화여 속에서 부터 정결함이 솟아나오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철(鐵)이 아무리 강하고 차다해도 불속에 들어가면 녹아지고 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죄가 아무리 먹보다 검고 주홍같이 붉어도 성신의 불속에 들어가면 부드럽고 따뜻하고 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인간이 다 좋을 지라도 보족하게 튀어나온 교만이 있으면 그것을 불속에 넣고 망치로 때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허락하시면 마귀가 막 칩니다. 고통과 질병, 파산과 눈물, 한숨으로 칩니다. 하나님께서 그만 하라고 하실 때까지 쳐서 예수의 형(型)에 부으면 겸손하고 순한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이시간 같이 의논하자고하시니 어찌 사랑의 음성이 아니리오! 지체말고 속히 와서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동의, 재청, 가결하여 하나님의 은총으로 눈과 같이 되십시오. 양털같이 성결한 사람이 되십시오. 비록 우리가 더러운 죄인들일지라도 예수께서 우리를 성신의 불속에 녹여서 예수의 틀(型)에 부어넣으면 다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될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